



## 박소현의 섹.시.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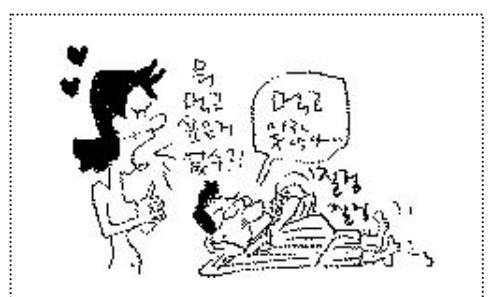
J의 남편이 바야흐로 중년으로 접어들었다. 느즈막히 결혼해 아이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데 나이는 어느새 사십대 중반이다. 마흔 중반을 중년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의를 제기 할 사람도 많겠지만, J의 남편은 본인 입으로 자신이 중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하긴 J가 보기에도 남편은 중년의 낙상을 충분히 풍기고 있는 중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중년이라는 단어를 나쁜 쪽으로 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남편은 근육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말라만 가는 팔다리와, 그에 비해 갈수록 불룩해지는 배에 관해서도 어쩔 수 없는 중년의 몸매라고 변명했고 쉬는 날이면 소파에 누워 온종일 뭉글거리는 자신의 행태를 중년남자의 피곤이라고 이를 불였다. 중년의 중후함이나 여유로움, 깊이 있는 삶의 태도 같은 걸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다. 남편이 말하는 중년은 그저 ‘삶에 너무 지쳐있는 한 남자’ 일 뿐이다.

그래도 얼마 전 아이 유치원에서 열린 아빠 참관수업에 다녀온 직후에는 젊은 아빠들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청준으로 돌아가려 잠깐 애쓰기도 했다. 구석에 체박아 두었던 아령도 꺼내고 주말에 등불원 나들이 계획도 세우고 하더니 그것도 잠깐,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덧붙인다. “아, 피곤해. 나 정말 중년인가 봐.”

그런데 남편의 행동 중에서 J가 가장 못 견뎌 하는 것은 근육 없는 몸매나 소파홀릭 증상 같은 것이 아니다. 그녀가 가장 괴로워하는 남편의 중년증상 중 하나는 바로 나날이 심해져만 가는 ‘식탐’이었다.



저녁에 과일까지 한뜩 먹어놓고도 남편은 9시 뉴스가 끝나기 무섭게 ‘뭐 먹을 것 없어?’ 하는 말과 함께 냉장고를 열거나 싱크대 선반을 뒤쳤다. 예전에도 간식거리를 찾긴 했지만 지금처럼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냉장고와 선반을 뒤진 적은 없었다. 남편은 꼭 J가 뭔가를 숨겨놓고 안 주기라는 하는 것처럼 ‘뭐 먹을 것 없어?’

하는 말을 시작으로 집요한 탐색작전을 펼쳤다. “배고파?” “배고픈 건 아닌데 입이 궁금해서.” 덕분에 거의 매일 똑같은 대사를 주고받아야 했다.

잠옷 바람으로 여기저기 열어보는 남편을 바라보다 J는 문득 옛 일을 떠올렸다. 그리고 보

## 오래전 한창 연애할 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건 너지”

10년 지난 지금은 “씹을 것 좀

나 아주 오래전 둘이서 한창 연애할 때, 그때 남편은 가끔 ‘먹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곤 했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말한 ‘먹고 싶은 것’은 지금의 ‘먹고 싶은 것’과 완전히 달랐다. 남편은 J와의 잡자리를 시도할 때마다 ‘먹는다’는 표현을 썼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건 당연히 너지.”

남편의 약한 농담에 웃으며 옆구리를 꼬집어 댈 때, J는 몰랐다. 몇 년이 지나 남편이 자신의 몸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오직 냉장고와 싱크대만 뒤지게 될 줄은.

“당신 그런 거 말고 먹고 싶은 건 없어?”

기어이 오징어 다리 몇 개를 찾아내 씹고 있는 남편을 향해 J가 난지시 물어보았다.

“뭐 있어? 진작 내 놓지. 어딨어?”

금세 생기가 드는 남편을 향해 J는 윗도리의 어깨 부분을 슬쩍 내렸다.

“여기 있잖아. 어때?”

“뭐야? 지금 네 어깨를 뜯어 먹으라는 거야?” 남편의 대답은 J의 기를 꽉 죽여 놓았다. 남편은 J를 잡아뗐다고 덤벼대던 그 시절의 기억마저도 잊어버린 듯 했다.

“아니, 어깨에 꿀이라도 발라놓을 테니 먹으라고.”

“꿀은 봤고, 씹을 만한 걸로 냉장고 좀 채워워.”

오징어다리를 질겅거리며 소파에 와서 앉는 남편,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J가 오히려 오징어다리도 씹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창밖으로 낙엽이 훌훌 흘러 추락하는 11월의 밤이었다.

〈연애칼럼니스트〉

88. 지난 1990년대 한국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던 이 가수가 마침내 가요계에 복귀합니다. (주)예당엔터테인먼트는 최근 “15주년 기념 음반을 29일 발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2년 데뷔해 ‘난 알아요’를 시작으로 ‘컴백홀’ 등을 잇따라 히트시키면서 1990년대 대중 문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이름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서태지 ②조용필 ③남진 ④나훈아

##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9일(음 9월 30일 丁未)

**子** 36년생 문단속을 잘해라. 48년생 남과 말다툼은 시비로 비화되고 절대로 피해야 한다. 60년생 시비는 화로로 처리해야 뛰어난다. 72년생 저녁 늦게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84년생 오후에 화재를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17, 16

**丑** 37년생 생각지도 않은 잔지 잡에 갈수도 있다. 49년생 속진속걸로 주진하는 대체가 생긴다. 61년생 오늘은 문단속을 잘해야 하리라. 73년생 어려내내에서 적적인 것에 마음을 쓰라. 85년생 충심을 잡으면 가사가 편안하리라. 행운의 숫자 : 01, 43

**寅** 38년생 주진하는 일을 꼼꼼히 점검하라. 50년생 부부간에 대정한 시간을 마련하라. 62년생 자녀의 고민을 먼저 생각해보라. 74년생 주변의 이웃과 친척을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하라. 행운의 숫자 : 02, 31

**卯** 39년생 자기의 지위는 자신이 지키도록 노력해야. 51년생 진척의 보증은 서지 따라 흥亡일이 생길까. 63년생 춤추고 노래를 하리라. 75년생 오늘은 교통사고를 면하고 음주운전은 어색하게 미루라. 행운의 숫자 : 42

**辰** 40년생 숨이 가쁜 하루로다. 52년생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성의껏 협조하라. 64년생 할 일을 분명하게 처리하고 다시한번 점검하라. 76년생 옛 일이 괴로움으로 나타나니 구사를 점검하라. 행운의 숫자 : 11, 41

**巳** 41년생 근처에서는 괴로움이 먼 곳에서는 좋은 소신이 온다. 53년생 노동을 주면 답은 그 이상이다. 65년생 전리길로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전진하라. 77년생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순간에 걸린다. 행운의 숫자 : 20, 38

**午** 42년생 나는 수자일 뿐 응감하게 진행하라. 54년생 되로 주고 맡고 받으니 활동을 많이 하라. 66년생 희망은 꽃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에게 온다. 78년생 흐린 날을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 12, 30

**未** 43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거리낌이 없고 마음은 편안하리라. 55년생 말리서 친구가 오니 즐거우리라. 67년생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진다. 79년생 뜻밖의 재난이 올 수 있으니 주변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22, 34

**申** 44년생 아내가 힘이 드니 아내를 살펴보라. 56년생 직장과 자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68년생 자녀는 자신의 미래니까 자신의 노력에 따라 달리진다. 80년생 좋은 사람과 하루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1, 32

**酉** 45년생 수인과의 금전거래는 불량거래가 될 수도 있다. 57년생 양보 받기 보다는 먼저 양보하면 좋은 날이다. 69년생 조급한 더 노력하면 주변의 부리움을 살 것이다. 81년생 편안한 하루가 된다. 행운의 숫자 : 18, 35

**戌** 46년생 오전은 흥하나 오후는 길하다. 58년생 상대가 원하면 무언이든 다주어야. 70년생 불의 어려움이 오지만 심성의 안정을 지키면 대고는 없다. 82년생 속 타는 일은 괴로움으로 격정할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14, 28

**亥** 47년생 사소한 말이 시비가 될 수도 있다. 59년생 삼월이 변하니 주위 깊게 살펴보라. 71년생 몸은 고달프고 마음은 우울하니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83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문제는 없다. 행운의 숫자 : 24, 44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 김태희, 난치병 어린이 돋기 5천만원 기부

## 검색정정 키워드

## 검색

빼빼로데이(11월 11일)를 앞두고 직접 만든 선물을 준비하려는 네이티즌들로 인터넷이 북적였다. 빼빼로를 꾸밀 수 있는 초콜릿과 포장지를 비롯해, 빼빼로로 하트나 장미 만드는 법 등을 검색하는 네이티즌들이 많았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최근으로 알려진 지상욱(42)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연구교수의 부인인 톱스타 심은하(35)도 검색어에 올랐다. 지 교수가 이 총재를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장면 등이 알려지면서 심은하가 최명길,

신은경 등의 뒤를 잇는 정치인의 스타 아내가 되지 않겠냐고 예상하는 네이티즌도 많았다.

최근 홈페이지에 스모키한 화장과 짙은 분위기 속에서 색다른 매력을 풍기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한 ‘태왕사신기’의 신인 여자 탤런트 이지아(26)도 눈길을 끌었고 배우 김태희(27)가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5천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뉴스로 알려지면서 네이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또 지난 7일 방한한 힐튼 호텔 상속녀 패리스 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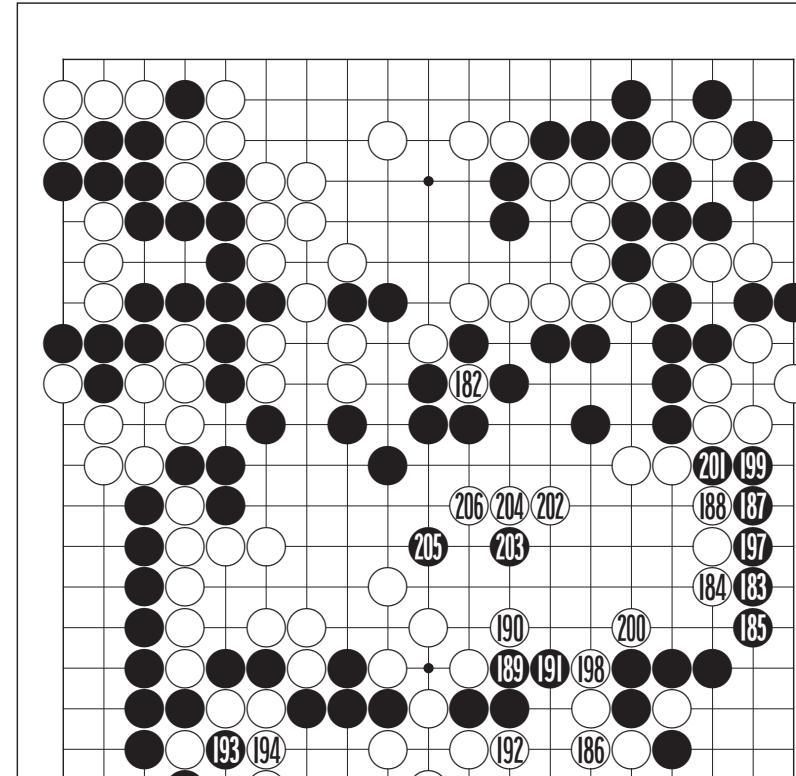
튼(26), 8일 한국을 찾는 세계적 팝스타 비욘세 놀스(26) 등 해외 유명 스타들의 내한 소식도 네이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외 KBS ‘황토백 중금속 검출’ 방송 보도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한 탤런트 김영애씨, 편란드에서 발생한 10대 고교생 교내 총기 난사 사건, 가요계 악동 DJ DOC 멤버 이하늘이 방송에 출연, 자신의 지난날을 솔직히 털어놓았다는 소식도 검색어에 올랐다.

/김지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최근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5천만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모은 탤런트 김태희.



## 제1호 광주시 바둑협회 회장배 바둑대회

최강부  
결승전

차이는 좁혔지만 11보(182~206)

白 심재욱 6단

黑 선계성 6단

하변 패의 결과로 백의 우세가 더욱더 확실해졌다. 좌변 백과의 바꿔치기는 비슷하지만 변화의 여지가 좁혀진 것은 백으로서는 바라는 바다.

느긋해진 심재욱 6단은 182로 중앙 패를 따냈는데 이 수는 작은 곳으로 의문이었다. 이 수로는 하변 186에 있는 것이 큰 곳으로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세不了解를 절감한 선계성 6단은 흑 183으로 우연 백 대마에 칼 끝을 들었다. 대마 184를 보았으나 심은하 185로 우연 백 대마에 칼 끝을 들었다. 대마 186를 보았으나 드디어 선 6단이 선선히 항서를 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선수하고 186에 이어 예봉을 슬쩍 피해버리자 헛 힘을 쓴 적이 되고 만다. 흑 183으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밀어올리는 것이 좋았다. 그러는 바다.

면 9까지가 예상되는데 이것이라면 차이가 많이 좁혀진다.

선계성 6단은 내친김에 187로 파고 들고 189로 움직이는 등 안간힘을 다했으나 흑 199에 200으로 바꿔친 것이 또 간명하여 여지를 없게 만든다. 백 206을 보더니 드디어 선 6단이 선선히 항서를 쓴다.

명인전에서 조한승 9단에 3-0, 완봉승을 거둔 이세돌 9단은 이번 대회까지 박영훈 9단을 상대로 5연승을 거두고 있다. 도전 3국은 오는 12월 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우승상금은 5천만원.

## 바둑 소식

이세돌, GS칼텍스배 2연승

이세돌 9단이 8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12회 GS칼텍스배 도전 2국에서 박영훈 9단을 191수 끝에 흑 불계로 꺾고 타이틀을 방어에 1승을 차�겼다.

이 9단은 특유의 변화무쌍한 행마로 순식간에 기선을 잡은 뒤 뒤 9단이 우연 흑진영에서 실착을 범하자, 우연을 접수한 데 이어 좌상귀마저 수습해 항서를 받아냈다.

명인전에서 조한승 9단에 3-0, 완봉승을 거둔 이세돌 9단은 이번 대회까지 박영훈 9단을 상대로 5연승을 거두고 있다. 도전 3국은 오는 12월 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우승상금은 5천만원.

<윤기경 기자 penfoot@

## 굿모닝 잉글리쉬 &lt;1030&gt;

Would you like to go out together tonight?

오늘 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어떨까?

A : Would you like to go out together tonight?

B : Of course. Can you pick me up?

A : Sure. I'll pick you up at 6:30 in front of your apartment.

B : All right, see you later.